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최현철**

전화 02-3219-4420/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5. 2. 27.(목)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  
**- 임시조직인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승격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 등에 발맞추어 **2025. 2. 25.(화)**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설치되어 **출범함**(2. 27.(목) 현판 제막식 개최)
  - ※ '24. 11.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일 평균 거래규모는 한국거래소(코스피)보다 5조원이 더 많은 14.9조원에 달함
-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유관기관 파견직원 등 **총 3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가상자산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상자산 **범죄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임시조직이던 기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3. 7. 26. 출범 후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엄단**(74명 입건, 25명 구속)하였고 은닉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박탈**(849억원 압수, 712억원 몰수·추징보전)해왔음
-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이러한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중점 수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1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출범

## 출범 배경

### 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

- '24. 11.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 평균 거래규모는 14.9조원에 이르고 투자자수는 1,559만명에 육박하는 등 코스피, 코스닥을 합한 거래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음

[단위 : 조 원]

구분 \ 월	'24. 7.	'24. 8.	'24. 9.	'24. 10.	'24. 11.
가상자산 거래소	2.9	2.8	2.8	3.4	14.9
코스피	12.0	10.6	10.3	9.7	9.9
코스닥	7.4	7.5	6.3	6.0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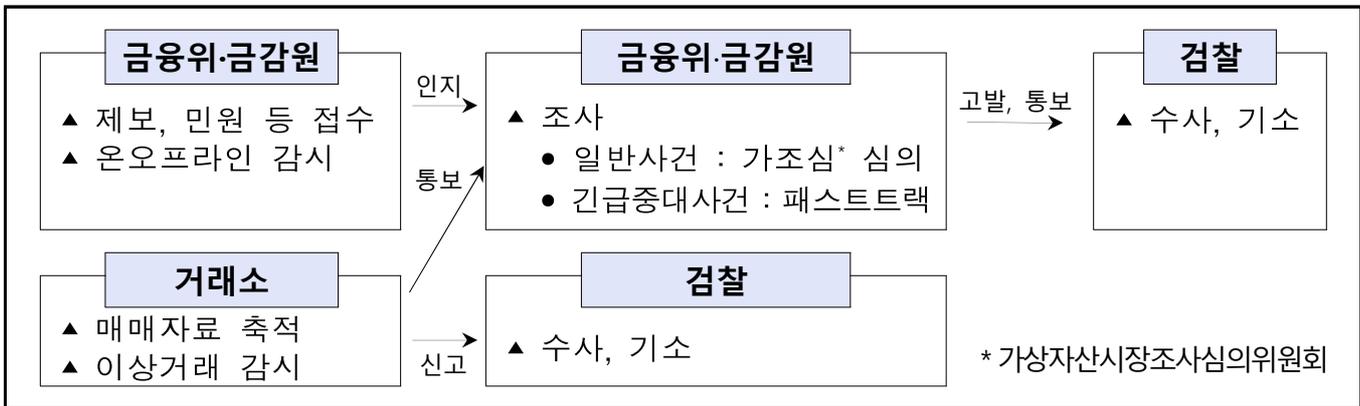
※ 親 가상자산 정책 기조의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

- 또한, '25. 2.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하였는바, 법인의 시장 참여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확대될 예정

### 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4. 7. 19.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위·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수사기관에의 고발·수사통보 제도 등 마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체계》



-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추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직제를 개편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24. 1.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 금융위원회는 '24. 6. 가상자산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 9. 가상자산검사과를 각 신설하여 운용 중임

## 추진 경과

- '23. 7. 26.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 '24. 8. 5. 출범 1주년 보도자료\* 배포
  - \*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1년의 성과와 각오
- '25. 2. 18.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 25. 공포·시행)
  -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25. 2. 25.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
- '25. 2. 27.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현판 제막식 개최(검찰총장 참석)

## 구성 및 업무

-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3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

구분	구성	인원(명)	세부구성	
검사		7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검찰 내부직원		16	검찰직	6급 4명, 7급 4명
			전산직, 통신직	7급 2명, 8급 2명
			사무운영직	7급 4명
유관기관 직원		11	금융위원회 1명, 금융보안원 1명, 금융감독원 2명, 국세청 2명, 관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1명, 코스콤 1명	

※ 유관기관 직원은 검사실에 직접 배치되어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인력은 기업회계 및 거래자료 분석, △ 한국거래소, 금융보안원, 코스콤 인력은 불공정 거래행위 분석, △ 국세청, 관세청 인력은 은닉재산 추적, 해외반출 분석 등 각 전문성 발휘하여 직접수사 지원

-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금융위원회 고발·통보 사건(법 §15),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사건(법 §12), 첩보·진정·내사사건 등 가상자산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상자산 범죄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

## 2 기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주요 성과

###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

- '23. 7.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출범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스캠코인 사기', '시세조종에 의한 사기', '불법 장외 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하고 엄단한 결과,
  -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하고 '코인왕'(존버킴), '온사마 코인' 사범,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를 비롯한 25명을 구속하였음
    - ※ 서울남부지검의 가상자산 관련 대표적 수사사례는 별첨 참조
- 또한, 합동수사단은 '24. 12.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이첩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하기도 하였음

\* 금융위·금감원이 혐의자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가상자산시장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하는 제도

###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박탈

- 합동수사단은 범인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현재까지 '존버킴'의 205억 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 현금 등 총 84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고,
- 청담동 주식부자의 270여억 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을 비롯하여 주식, 가상자산, 채권 등 총 7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하였음

## 3

## 향후 중점 수사 방향

-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② 스캠코인 사기, ③ 초국가적(국제적)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중점 수사할 예정

## 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장공개 前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폐지 등 호재성·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작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 [사기적 부정거래] 가상자산 백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 ② 스캠코인(Scam Coin) 사기

- 스캠코인은 처음부터 코인 사업 의사나 계획 없이 오로지 코인을 상장시킨 후 시세조작을 통해 다수의 거래소 이용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말함
- 스캠코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범행이라도 일반 사기죄로 적극 의율하여 계속 엄단

## ③ 초국가적 가상자산 범죄 유형

- [국내시장 타깃형 범죄] 해외 발행업자 등 해외 세력의 국내 시장을 타깃(target)으로 한 상장 비리, 불공정거래행위
- [불법 외환거래] '김치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려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판매한 후 무역대금 등으로 위장 송금하는 불법 외환송금 등

-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국제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각 기관에 산재한 가상자산 업무 관련 전문성과 Know-how를 결집하여 효과적인 범죄대응체계 구축
- 향후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전문성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범죄를 신속·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 [별첨 : 대표적 수사 사례]

### ■ '코인왕·존버킴'으로 불리는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구속 및 재구속

- SNS에 부가티 디보 등 슈퍼카 사진을 게시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존버킴을 수사하여, 그가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시킨 후 전속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운용하여 809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어 **존버킴 등 2명 구속**(24. 7. 17. 등)
- 존버킴이 포도코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다른 스캠코인인 아튜브코인(ATT)을 발행·상장시켜 동일한 수법으로 2,612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어 석방 1개월만에 **존버킴 재구속 등 2명 구속**(25. 2. 20.)

### ■ 상장브로커로부터 코인 상장 대가를 수수한 거래소 임직원 구속

- 거래소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수한 결과, **코인 상장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켜준 국내 5대 거래소 임직원 2명 등 **4명 구속**

### ■ 코스닥 상장사 회장으로로부터 코인 상장 대가를 수수한 거래소 대표, 프로골퍼 적발

- 시세조종을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부실 코인 상장을 청탁하고 현금 30억원 및 명품 시계, 가방 등을 공여한 **코스닥 상장사 회장**과 이를 수수한 **국내 대형 거래소 대표 및 프로골퍼 적발**(1심에서 각 실형 선고)

### ■ 주식시장에서 코인시장으로 넘어온 시세조종 세력 적발

- 증권범죄로 실형 선고받고 수형 중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코인시장을 노리고 다수의 스캠코인을 발행하여 코인거래소에 상장한 후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약 900억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OO 형제 등 5명 구속**

### ■ 스캠코인인 속칭 '윤사마 코인' 발행·판매 세력 적발

-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사업의 외관만을 갖춘 채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13,000명을 상대로 약 300억원을 편취한 퀴비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7명 구속**

### ■ 국내 최대 코인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코인판' 유사수신·사기 범행 입증

- 코인을 예치하면 분산투자 및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다고 기망, 피해자 16,000명을 상대로 1조4천억원을 편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3명 구속**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5천억원대 코인을 불법 거래한 장외거래(OTC) 업체 적발

-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5천억원대 가상 자산을 매매하여 음성적 자금세탁을 조장한 미신고 불법 OTC 업체를 최초로 수사 하여 **업주 1명 구속**(1심에서 업주 및 주가담자 실형 선고)

■ 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시세조종업자 구속

- 금융위·금감원에서 **Fast Track**으로 이첩받은 **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거래량 부풀리기 주문과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조종하여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업자 등 2명 구속**